

뉴스레터(제4호) 원고

작성자 : ██████████

작성일 : 2014. 4. 7

- 목적 :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대내외 활동을 유관기관 및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반성매매운동의 동향을 전달한다.
- 디자인 컨셉 : 봄, 그린
- 일정
 - 3/28 계획안 확정
 - 3/31 원고 요청 (대표님, 서순성 단장, 김주경, 각팀)
 - 4/4 활동소식 원고 마감 및 편집
 - 4/8 디자인 의뢰
 - 4/10 원고마감 (길에서 보내는 편지, 인사말, 칼럼)
 - 4/14 발송

Newsletter No.4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시 강서구 ██████████ || 02-6348-1318 || 010-3232-1318 || ██████████

■ **길에서 보내는 편지** <길에서 보내는 편지>는 우리네 활동에서 마주치는 현상과 에피소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 위한 조진경 대표의 현장이야기입니다.

----- <자세히 보기>

■ **인사말** ██████████ **법률지원단장)**

‘인사말’은 2013년 12월에 발대한 법률·의료·심리지원단장들이 지면으로 인사하고 의지를 밝히는 코너입니다.

■ **의료칼럼** ██████████ **의료지원단장)**

‘의료칼럼’은 청소년 또는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의료 상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활동소식

	<p>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선정 : 성매매 유입/재유입 예방을 위한 청소년 심리치료와 부모교육 '옹달샘 2014'</p> <p>십대여성인권센터는 작년 3월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재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료, 주거, 학업, 일자리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아인식과 표현이 미래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1:1 심리상담과 부모/조부모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옹달샘2014' 사업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공모, 당초 신청했던 기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비입소 피해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더 많은 청소년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옹달샘2014'를 시작하며.. ([REDACTED] 심리지원단장)</p> <p>-----<자세히 보기></p>	

[사무국]

	<p>운영위원회</p> <p>십대여성인권센터의 2014년 1차 운영위원회가 1월 13일(월)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에서 장민혜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2013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이루어질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한결같이 한 해를 숨 가쁘게 달려온 사무국 식구들을 넘치도록 치하·격려해주셨고, 또 새로운 사업을 승인하고 논의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답니다. 덕분에 올 한해도 든든한 배경삼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p>
	<p>법률/의료/심리지원단 정기모임</p> <p>2013년 12월에 발대한 법률·의료·심리지원단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월 1회 이상의 회의에 90%가 넘는 출석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원단의 이런 열정에 실무자들도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매매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조진경 대표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올해 진행할 활동계획을 수립하느라 빠듯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소송대리와 공동고발을 준비 중이고, 의료지원단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검토하면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리지원단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에 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빠듯한 살림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지만 지원단들이 있기에 저희는 너무나 든든합니다.</p>

	<p>법률교육</p> <p>3월 28일(금) 센터의 운영위원이자 법률지원단이신 ■■■ 변호사님(평택지원 국선번호사)을 모시고 법체계와 구체적인 법률지원실무에 대해서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육은 그간 너무나 궁금했지만, 차마 어디에서도 물어볼 수 없었던 아주 세세하고 미묘한 내용을 담은 활동가들의 질문에 변호사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교육 내내 활동가들의 참여와 의견교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강의하시는 변호사님도 시종일관 호뭇해하시며 성의를 다해 진행해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 앞으로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십대여성들의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도 좋을듯 합니다.</p>
	<p>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활동</p> <p>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부지런히 방문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정성껏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화)에는 여성성공센터 W-ing에서 주최하신 십대여성관련기관 간담회에 다녀왔고, 2월 17일(월)에는 한국여성재단 장학생 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3월 21일(금)에는 서울시립 청소년건강센터, 3월 18일(화)에는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저희 기관을 홍보하고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까치산 깊숙이 자리한 저희 사무실까지 내방해주신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팀, 들꽃피는마을공동체, 여성성공센터 W-ing, 주빌리 프로젝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p>
<p>사진없음</p>	<p>연대활동</p> <p>지난 2월, 성구매 적발로 직급이 강등되었던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강등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발빠르게 연대하면서, 서귀포시장과 제주지법 행정부 부장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 3월 3일(월)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보도자료 연명을 통해 관련단체들과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 외에도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위한 모임,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p>

[상담팀 : 사이버포래상담사업]

	<p>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교육</p> <p>사이버포래상담실의 중심, 2014년 제5기 사이버포래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2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흥대입구에 자리한 Toz에서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양성교육의 기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4명의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낯설지만 같은 기대감으로 배우고 느끼고 즐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첫째날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대한 상세한 소개, 색유리기에 대한 본격탐구를 진행하였고, 둘째날은 심리지원단 ■■■ 선생님과 함께 미술을 통해 자아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셋째날은 대표님을 통해 성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와 개념/맥락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날은 선배상담원들과 격의없이 만나면서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물어보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성교육에 참여한 4명의 참여자 전원이 모두 수료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각자의 다짐을 담은 잡지그림발표와 양성교육의 면면을 세심하게 담았던 영상을 끝으로 짧은 교육기간을 웃음과 감동으로 기억하였습니다.</p>
---	--

<p>사진없음</p>	<p>사이버포래상담원 인턴십</p> <p>검정고시 준비로 아쉽게 인턴십을 보류한 1명의 수료자를 제외한 총 3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화), 국회에 방문하여 [redacted] 입법심의관님과 [redacted] 의원님을 만나 평소 국회활동에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보고 포래상담원 활동에 대한 격려사도 들었습니다. 인턴십 과정 중 처음으로 진행한 외부활동이었는데요, 5기 인턴들은 “내가 국회에서 밥을 먹을 줄 몰랐다”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월 14(금)일에는 [redacted] 운영위원장님께서 한글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차에 단축키, 표 만들기 등을 배우게 되어 업무에 속도도 붙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3월 24(월)일에는 심리지원단 [redacted] 선생님께서 MMPI 와 문장완성검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전보다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그밖에도 재판 참관,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곧 멋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날들이 기대됩니다.</p>
	<p>소송대리, EXIT 공동고발 준비중</p> <p>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거리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성폭력,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동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술서와 고발장 작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센터는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교육과 더불어 성구매 수요와 알선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그 활동들은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해 나가겠습니다.</p>

[교육팀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p>지지모임</p> <p>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지난 3월 3차례의 지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5~16(토~일)일에는 1박 2일로 2013년 1차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대관령양떼목장, 경포대해수욕장, 오죽헌 등을 방문하여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 년 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미래에 관한 글도 작성하였죠. 작년과 많이 달라진 친구들의 모습에 흐뭇하고 대견한 마음이었습니다. 22일(토)에는 내 피부의 건강을 위해 천연재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집으로 완성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일)에는 롯데월드에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평소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이라 그런지 밤이 늦을 때까지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활동이지만 참여자들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추억을 가져간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뒤에서 든든한 지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깨닫고 미래를 위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p>
	<p>청소년성장캠프 후기</p> <p>2014년 5월 24일, 나와 교육센터 선생님들과의 첫 만남. 친구인 [redacted]이가 사이버포래상담실 인턴십을 할 때였다. 그때 나는 성매매를 하며 모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친구 [redacted]이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검정고시만 따려고 상담원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연히 그날이 1차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redacted]</p>

■ 짚막소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작년 12월 기관명칭을 사이버포래상담실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와 CI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없이 홍보활동을 진행하느라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왔었는데요. 올해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본 센터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TF팀이 구성되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니 곧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개성이 담긴 홈페이지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Coming soon!!
- 1월 16일(목) 조진경 대표가 **'청소년성매매 피해 전문상담소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국일보사설에 기고하였습니다. <원문보기>
링크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401/h2014011521041024060.htm>
- 2월 10일(월) **여성가족부 담당과장과 주무관**이 본 센터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놓은 센터 살림살이를 구경하셨고, 사이버포래상담사업과 관련한 이후 계획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고간 자리였습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온누리 English Ministry와 함께 성매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주빌리 프로젝트**에 협조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주빌리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LA에 있는 non-profit film production company로, 단편영화나 다큐를 통해 젊은이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청소년 따돌림, 자폐증, 치매, 청각장애, 아동성매매 등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 2014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1차 청소년성장캠프**가 **4월 14일(월)~19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등으로 지쳐있을 청소년들이 캠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번의 캠프가 더 진행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짝소식§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위기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걷는아이들'의 ■■■■■ 이사님께서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이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전달해주신 후원금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좀 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지원해 주신 사업지원금은 센터 홈페이지 제작 등의 사업비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이사님과 '함께걷는아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적극적인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들로 그 마음을 곳곳에 뿌리내리겠습니다.

■ 후원자 명단(1월~3월)

■■■■■
■■■■■
■■■■■
■■■■■
■■■■■
■■■■■
■■■■■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첨부] 청소년성장캠프 후기 원고

김아라(가명, 2014년 현재 19세, 2013년 5월 청소년성장캠프 수료)

2014년 5월 24일, 나와 교육센터 선생님들과의 첫 만남.

친구인 미정(가명)이가 사이버포레상담실 인터넷을 할 때였다. 그때 나는 성매매를 하며 모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친구 미정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검정고시만 따려고 상담원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연히 그날이 1차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선생님들의 꼬드김으로 갑자기 나도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민영 선생님께서 내가 지내던 S동 모텔에 찾아가 나와 내 친구의 살림살이를 다 싸서 가져다 주셨다. 그로 인해서 난 그리나쌤과 현희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인연이 닿게 되었다. 캠프기간은 일주일이었는데 정말 나에겐 지옥 같았다. 우선 집밥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나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과 편한 잠자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진심 어린 사랑을 무한으로 베풀어 주셔서 어색하고 낮간지러웠다. 그래도 싫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은 진짜 편했다. 내가 지옥 같았다고 한 것은 너무 뻑뻑했던 일정 때문이다. 밤일을 하다가 온 나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프로그램 하나에 무려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투자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가 (서울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프 1기였다. 그래서 쌤들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체험하게 하고 싶고, 배우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정을 잡은 것이었다고 한다. 캠프 기간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와도 처음으로 심하게 타투고 중간에 그냥 가자고 애기처럼 쪼짱대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그때 중간에 캠프를 포기하고 다시 S동으로 갔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캠프가 끝나고 함께 지내던 친구와 무조건 같은 컴퓨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원래는 동반입소가 안되는데 한 곳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입소를 했다가 그날 바로 다시 나와 버렸다. 그러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와 떨어져보기로 마음먹고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처음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은 적응기간인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정말 답답하고, 낯선 선생님들과 낯선 친구들과 한집에 있자니 영 불편하고 힘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나쌤한테 전화해서 투덜대고 쪼짱대고.. 참.. 그리나쌤도 한 성격하는데 어떻게 날 다독여주고, 잡아줬는지.. 참 신기하다. 그로 인해 난 새날에서 8개월 동안 지낼 수 있었다. 청소년 쉼터라 20살 때까지 있을 수 있고, 20살까지 있기로 실장님과 약속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 원래 내 꿈은 유치원 교사였다. (대안)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인터넷을 한 달 동안 나갔었는데 그로 인해 난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했고 갖은 스트레스로 위기를 맞아 퇴소해 버렸다. 8개월만에.. 새날을 나와서 난 또다시 S동으로 가 성매매를 시작했다. 돈과 자유에 많이 목말라 있던 상태여서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해서 술도 많이 먹고 자유를 누렸다. 성매매를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나는 모든 선생님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지내며 슬슬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쯤, 그리나쌤에게 계속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은 성인쉼터에 들어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날 사랑해주는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리나쌤, 현희쌤, 남일량 쌤, 대표님 등등. 감사해요 ^^ 앞으로 나는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거다. 파이팅 ^^

2014년 3월 15일

길에서 보내는 편지4

2011년 제주시 경찰이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던 중,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도교육청, 제주소방서 직원들 다수가 성매수 행위로 기소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채취한 증거들로 기소되었고, 관련자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벌금을 받은 A씨에 대해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근거로 6급 공무원에서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키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강등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제주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 취소처분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성매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1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수상경력이 있다”며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지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담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 부장판사님 앞으로 보낸 항의서안입니다. 함께 읽고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 부장판사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격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인터넷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등의 많은 문제들로 가출하여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도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의료·상담·자립·자활·학업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성매매가 얼마나 끔찍하게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해를 키치는 범죄행위인지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부장판사)의 공무원 A씨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따른 강등처분을 취소판결한 결과를 보고 심히 우려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하여 마다하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어 전국에서 성매매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향후에라도 성매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하기까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저희는 몇 가지 의문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A씨가 성매매를 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2014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한국은 유죄확정돼야 퇴출”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LA 교육당국은 2013. 5.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고, 미국 대법원은 2007. 2. 26.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만 해도 해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에 반해 유죄가 확정돼야 퇴출한다고 쓰면서 미국에 비해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반영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 말미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의 “극소수의 문제 교사 때문에 대다수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전체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말은 이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부장판사)의 판결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공무원의 성매매 범죄가 그나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도 1회가 아닌 2회씩이나 성매수 행위를 일삼았음을 근거로 즉각 공무원 세계에서 퇴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켰을 뿐인데, 이에 대해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공무원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징계가 과도하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 판결하였으니, 과연 이번 판결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 행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혹여 그 행위를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정도의 매우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현장에서 매일 성매매의

폐해를 겪고 있는 저희 활동가들로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A씨가 공무 중 접대로 성매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돈을 내고 성매수를 했는지를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판사님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하며 이에 따라 제공받은 성매매는 대단히 잘못된 범죄이나,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인 남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위는 이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범죄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 규정, 범죄시 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처벌하여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매매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인 남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위 자체를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인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매수를 한 범죄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범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 업주들과 유착하여 성매매업소를 비호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이에 대해 그간 매번 공무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대해서 역시 처벌에 따르는 처리가 이어져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별도의 윤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강등처분 취소 판결은 뭔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성매수를 했기 때문에 직급을 강등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성매수 범죄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되어야 함에도 직급을 1급만 강등시킨 것은 도리어 너무나 약소한 처벌이라고 판

단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3.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결국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부장판사)의 판결은 많은 잠재적인 공무원 성매수 범죄자들에게 성매수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을 제공한 판결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매매 범죄가 피해자 없는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하고 흔히 행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만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자들에게 역시 면죄부를 제공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일 성매매 피해를 직면하고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저희와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의욕이 상실되고 의지가 꺾이며 정당성이 희석되는 매우 청천벽력과도 같은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성매매 범죄를 축소시킬 수 있겠으며, 공급이 부족해 점점 어린 연령의 소녀들까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 부장판사님!

저희는 앞으로도 이후의 과정을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볼 것이며, 서귀포시의 항소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한 존경하는 김호영 부장판사님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확신하며 부디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해를 키치는 성매매 범죄행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2. 7.

십대여성인권센터 올림

의료칼럼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들 1편

발진이 일어나면 대개 이것이 전염성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알레르기 현상인지 궁금해 합니다. 우선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빈도순으로 몇가지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수두’(chicken pox)는 요즘 진료실에서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두가 기본 접종 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대개 수포에 딱지가 앉고, 더 이상의 발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염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감염된 지 수년, 혹은 수십년 뒤에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깨고 나와 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해 해당 신경에 근접한 피부에 바이러스성 감염이 되는 것이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대상포진입니다.

2. 성홍열

성홍열은 편도 인두 및 피부에 A군 연쇄구균 감염(위의 병들은 바이러스 질환이었고, 이것은 박테리아 질환입니다.)으로 발생하는 홍반성 발진이 특징입니다.

성홍열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날 때까지 호흡기 격리시켜야 합니다. 환자와 접촉한 가족은 검사해 봐야 하고 잠복기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3. 여드름

여드름은 화장,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의 각질이 정상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모낭을 막거나, 사춘기 때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모낭에 피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모낭 속에서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Propionibacterium acnes*) 같은 세균은 쌓인 피지를 먹고 자라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통 피부에 붉게 나타나지만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 등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드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력이 강한 세안제를 이용해 모낭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르는 약으로 효과가 없다면 항생제나 비타민A제제를 이용합니다.

4. 지루성 피부염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되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와 얼굴에 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인설)이 특징이며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는 비듬이 발생합니다.

약한 스테로이드 크림을 얼굴에 사용하고, 두피에는 샴푸와 스테로이드 액이 사용됩니다.

5. 모공각화증(:닭살 Keratosis pilaris)

주로 팔, 허벅지, 어깨 등 바깥쪽에 모공을 따라 회색 또는 갈색의 작은 돌기가 보입니다.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 마개는 모낭의 입구에 박혀 있으며, 이를 일명 닭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더욱 악화되므로 자주 샤워를 하거

나 때를 미는 것은 삼가고,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무는 공간의 습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전 질환이므로 근본적인 예방법은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샤워를 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질 용해제나 비타민 A 연고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공 속에 박혀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박피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6. 켈로이드

켈로이드란 피부손상 후 발생하는 상처치유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섬유조직이 밀집되게 성장하는 질환으로 본래 상처나 염증발생 부위의 크기를 넘어서 주변으로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술을 할 수도 있지만, 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사요법, 방사선 치료등의 보조치료와 함께 병행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병변이 클때는 냉동치료요법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사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옹달샘2014’를 시작하며.. (■■■■ 심리지원단장)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심리지원단은 심리치료사, 발달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와 같은 14명의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심리지원단이 2014년에 맡게 된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옹달샘 2014’는 심리지원단원들이 가진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옹달샘 2014는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청소년 중 성매매 유입 고위험군 대상자를 진단하여 조기개입하기 위한 집중 캠프

두 번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주호소인 왜곡된 표현방식과 혼란된 자기이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탈 성매매 의지를 키우기 위한 1:1 심리치료

세 번째는 앞 선 두 파트에 속한 청소년의 부모/조부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갈등을 이해하고 자녀의 탈성매매 지원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특화교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위 세 파트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단·평가 척도분석과 사례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입체적 심리지원 프로젝트인 옹달샘 2014를 통해 심리지원단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 사회적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옹달샘 2014의 유의미한 결과가 해당 청소년들이 가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회적 장치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